

■ 광주비엔날레 재단 개혁 1년 성과와 과제



문화 CEO 선임과 정책연구실 신설 등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개혁 작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재단이 주최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리셉션 모습. /밀라노=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3대 비엔날레 진입 초석

투명한 감독 선임·폭넓은 해외 인맥 확보

전문인력 양성·직원 처우 개선은 과제

'신장이 가져 박사' 파문으로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었던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한 지 1년이 됐다.

개혁안에 따라 문화 CEO(상임부이사장)와 정책연구실 등이 신설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예술 총감독을 선임했고, 폭넓은 노하우와 인맥을 쌓는 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비전 마련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단 지원의 처우 개선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체계적인 재단 운영 기틀 마련=재단이 지난해 6월10일 이사회를 통해 선임, 신설한 문화 CEO와 정책연구실 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문화 CEO는 이사를 대신해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문화 전문가이며, 정책연구실은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감독 선임에 관한 DB구축 등의 업무를 맡는 기구이다.

재단은 지난 5~11일 이탈리아 베니스와 밀라노, 스위스 바젤 등지에서 유럽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이벤트를 펼쳤다.

지난 5일 베니스의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리셉션'에는 2008 브뤼셀비엔날레 바바라 반데리엔 총감독 등 미술 전문가와

'artnet' 에너 편집장 등 세계 주요 미술매체 언론인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는 9월2일부터 열리는 제 66회 베니스국제영화제를 연출하게 될 마르코 킬러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광주비엔날레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이번 행사 성격이 상이한 것은 재단 개혁 작업의 핵심 카드였던 이우용 상임부이사장과 정책연구실 등이 체계적인 인맥 관리를 통해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장이 파문'으로 불거진 총감독 후보 선출방식과 절차상 문제점도 일부 해결됐다.

정책연구실이 감독 후보를 찾고, 검증한 뒤 후보군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영국 테이트 모던 갤러리 비디올 토롤리관장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총감독 선정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마시미리아노 지오니로 최종 후보로 압축하는 이중 검증 체계를 가동했다.

과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총감독 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후보를 찾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단이 직접 국제 인력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후보 검증을 한 것이다.

정책연구실은 또 오는 8월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를 개설하고, 미술 전문가 '눈'지도 창간한다. 비엔날레를 주

최하는 세계 각국의 재단이나 위원회가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과 지원자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 비전 마련, 전문가 육성해=재단 개혁안의 기초를 마련했던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2008년1월)에서는 "비엔날레가 지역 내 인물을 키워 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술사의 흐름에 밝고 이해가 빠른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총감독 선임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다.

재단은 그동안 직원의 잦은 퇴사와 보직 이동, 주먹구구식 해외 인맥 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국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재단에 공개 채용된 직원 15명 중 10명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그만뒀다. 재단 창설 14년 동안 내부 승진 인사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재단 직원들이 쌓은 '노하우와 인맥'이라는 재단의 무형의 자산이 소멸하고 있어, '개혁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내부 조직을 강화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또 빼어난 관광지를 앞세운 상하이비엔날레 등 2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국제 미술 행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재단 정책연구실 김은영 실장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미술 인맥 아카이브를 구축해 세계 3대 비엔날레에 진입하는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 일대 자연 생생하게

7월 2일까지 광주한국화현대사생회원전

자연의 아름다움 빛깔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광주한국화현대사생회(회장 박문수)가 7월2일까지 합평 갯벌미술관에서 회원전을 갖는다.

여섯 번째인 이번 회원전에는 고성주, 김병균, 김승근, 김은자, 박경운, 박영희, 박민덕, 송혜순, 윤준현, 이광래, 이두환, 이승대, 정민덕, 정인선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무등산 야생화'를 주제로 입석대, 서석대 등의 아름다움과 담양·회춘 등 무등산 자락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박문수 작 '목사동의 봄날'

지난 2004년 창립된 광주한국화현대사생회는 매월 전남 일대를 돌며 자연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대학생들 협연 무대

16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이 젊은 국악도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을 마련했다.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대학생들의 경우 독주 무대는 간혹 서지만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는 좀처럼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연주회는 올해 새로 부임한 심지



심인택 지휘자



이선진씨

휘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관현악단측은 2개월 전 국악과가 있는 각 대학에 공

문을 발송, 참가자를 모집한 후 수·차석 단원들이 참여하는 오디션 과정을 거쳐 협연자를 선발했다.

협연자는 이선진·이유리·윤암현·이희영·임상혁·서미정·김보경·박이슬씨며 연주 레퍼토리는 옥류곡 협주곡 '황금산의 백도라지', 대금산조 협주곡 '원장현류 대금산조', 실장고 협주곡 '소나기'다. 문의 062-510-9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카메라타 플레기움 제 15회 정기연주회

15일 광주문예회관

지난 2000년 창단한 카메라타 플레기움 제 15회 정기연주회가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우광(사진·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바흐의 '푸가 G단조 작품 578',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앙상블을 위한 세레나데 C단조'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서구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서구빛고을 국악전수관은 제 29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열리며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단소, 장고, 고보(북), 해금 등 총 8개 강좌다.

특히 이번 국악문화학교는 야간반(민요, 장고) 두 강좌를 신규 개설,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강좌는 주 2회(단소는 주 1회) 진행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 원이다. 모집 기간은 30일까지다. 문의 062-350-455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CBS 창립 6주년 '카르멘 아리아'

16일 여수 시민회관

전남CBS가 창립 6주년을 맞아 '카르멘 아리아' 음악회를 연다.

전남CBS는 16일 오후 7시30분 여수 시민회관에서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국립 오페라극장의 주역 가수를 초청, '카르멘 아리아' 음악회를 연다.

'카르멘 아리아' 음악회에는 카르멘 역을 맡은 타티아나 고르부노바와 에스카미요

역을 맡은 카리타 마피안 등 4명의 가수들이 참석해 공연을 한다. 음악회에서 가수들은 '백화(Cranes)'와 '백만송이 장미(Million of Red Roses)' 등 우리에게 익숙한 러시아 가곡과 '아베 마리아(Ave Maria)' 등 성가곡도 부를 예정이다.

특히 '보리밭'이나 '아리랑'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곡도 함께 불러 친숙함을 전한다.

무료 입장. 문의 061-901-1000. /광명기자 kps@kwangju.co.kr

호남시조문학회 시조 공모

호남시조문학회(회장 김옥중)가 '제 1회 전국인턴넷·우렌 시조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요지에서', '분청사기', '노동의 미학과 농민들의 이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자 마감은 10월30일까지로 이메일(koj3221@hanmail.net)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66-80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대 featuring legal services and real estate information.

Large table containing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경매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